AI digest 2026-11-18

11월 18일 AI 아침 브리핑

국내 소식을 먼저, 국내 연구 성과와 공공 AI 정책, 거시 분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GitHub 저장소·앱 소개는 독자 지시에 따라 제외합니다.

1. KAIST, 화면 보고 일하는 한국형 웹 에이전트 'KORMo-Web' 공개

구분: 국내 AI 연구 / 2026-11-17, 전자신문 보도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임경태 교수팀이 사람처럼 웹 화면을 보고 마우스 클릭과 키보드 입력으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KORMo-Web(콜모 웹)'을 공개했습니다. 40억 개 매개변수(4B)의 소형 모델 하나로 개인 컴퓨터에서 실행됩니다.
- 기존 자동화가 웹사이트의 HTML·DOM 구조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사람이 실제로 보는 화면과 사용 기록 중심으로 학습했습니다. 한국인이 자주 쓰는 사이트를 포함해 한국어·영어 웹 환경에서 1000만 건 이상의 화면 기반 학습 샘플을 구축했습니다.
- 시연 예시로 챗GPT·클로드를 오가며 자료 조사와 정리를 하거나, 네이버 쇼핑·쿠팡 상품 검색, 이메일 작성·발송 등 실제 웹사이트에서의 40가지 작업을 4분으로 압축한 영상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 주의: 시연 영상 기반 공개로, 독립 기관의 벤치마크 검증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화면 인식 에이전트 특성상 오조작·보안 위험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제안 (BIM 연계): API 연동이 어려운 웹 기반 건설 관리 시스템(공정·품질 관리 포털)도 화면 인식 에이전트로는 자동화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 웹 환경 학습 데이터를 갖췄다는 점에서 국내 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지켜볼 만합니다.

이미지: 기사에 실린 KAIST 연구팀 공개 화면(KORMo-Web 프로젝트 안내). 출처: https://www.etnews.com/20261117000335

2. 정부 AX '원스톱 지원'…환경·복지·안전 등 공공 AX 10개 과제 밑그림 나와

구분: 국내 공공 AI / 2026-11-16, 전자신문 기획 보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범정부 인공지능 전환(AX) 원스톱 지원을 통해 환경·복지·안전 등 10개 과제의 서비스 목표와 구현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부처의 업무 현안에 민간 전문성을 연결해 데이터 확보부터 AI 모델 선정, 인프라 구성까지 실행 경로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 원스톱 지원은 올해 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정부 AX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NIPA가 'AX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부처 기획과 민간 전문가 연계, 기술·인프라 활용을 돕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공공AI사업지원센터'로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별도 헬프데스크로 개인정보 위험 점검과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합니다.
- AI 학습데이터 확보, GPU 등 인프라 활용, 개인정보·보안 문제는 부처들이 AX를 추진하며 반복해서 겪는 어려움으로 꼽힙니다.
- 주의: 10개 과제는 기획 구체화 단계로, 실증·확산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제안 (BIM 연계): 공공 AX 과제에 안전 분야가 포함된 만큼, 국토·건설 안전 관련 공공 데이터와 AI 공통기반

을 활용하는 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처 과제가 확정되면 건설 공공기관의 AX 사업 흐름도 읽힐 것입니다.

이미지: 기사에 실린 지난 4월 범정부 AX 컨설팅 착수식 사진(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 출처: https://www.etnews.com/20261116000407

3. 한은 “AI로 아낀 업무시간 2.4배로 늘었지만 생산성 효과는 제한적”

구분: 국내 AI 거시 분석 / 2026-11-17, 연합뉴스 보도

-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이 17일 낸 ’BOK 이슈노트: AI 확산과 생산성 효과’에 따르면, 올해 8~9월 전국 취업자 1만6342명 조사에서 업무용 생성형 AI 활용률이 66.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1.8%보다 14.7%p 올랐고, 미국(43.0%)과 유럽 6개국 평균(33.7%)을 크게 웃돕니다.
- 업무시간 절감률은 3.8%에서 9.2%로 약 2.4배로 확대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주당 1.5시간에서 3.7시간을 아낀 셈이며, 연구팀은 내년이면 하루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다만 절감된 시간의 63%가 다시 업무에 투입되면서 산출·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생산성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절감률은 유료 사용자(11.4%)와 회사 지원 사용자(11.6%)가 무료 사용자(8.3%)보다 높았습니다.
- 주의: 자기보고식 설문 기반 추정치로, 실측 생산성 지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안 (BIM 연계): ’절감 시간이 산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건설사 AI 도입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간 절감량보다 재투입된 시간의 용도를 추적하는 성과 지표 설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입니다.

이미지: 한국은행 제공 조사 결과 그래프.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7075000002